

[ 오피니언 ]

월/요/광/장

손 용 업



서울의 부동산값이 요동치는 몇 해 동안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여정부 부동산정책 담당자들이 몰려나오면 정부는 공급확대 부동산정책에 눈을 돌렸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광주에 사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자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키우던 자식을 서울로 보내고부터는 서울의 부동산값 인상 소식에 자식 앞에 죄인과 같은 심정이 날로 커간다.

참여정부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특정 지역을 버블세븐 지역으로 정조준하여, 주택거래가격을 살려내가격으로 신고하게 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증과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소위 수요억제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하지만,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은 끊임없이 큰 폭으로 올랐고, 급기야 주택가격 상승 기세는 버블세븐 지역에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번지고 고급아파트에서 서민용 아파트로 확산됐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움직임을 높여 서울도심의 다가구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급확대정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움직임을 높여 서울도심의 다가구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급확대정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방에서 본 정부 부동산 정책

에 몰려 있는 현상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발전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바꾸고 주택 추수를 높이는 행위는 불가역적인 투자를 수반한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길은 지방의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과감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시중에 돈이 많아 유통되고 있는 유동성에 따른 현상이다.

이차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기준에 통화량을 추가하여 보다 밀접하게 유통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인상 추세를 완화시키는데 데 기여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금을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진입장벽은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을지 모르나, 조그마한 봉급에 의지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장래에 가족의 서울 진출을 포기하거나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길은 지방의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과감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시중에 돈이 많아 유통되고 있는 유동성에 따른 현상이다.

이차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기준에 통화량을 추가하여 보다 밀접하게 유통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인상 추세를 완화시키는데 데 기여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금을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진입장벽은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위기의 서민경제 이대로 내버려 둘 건가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권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8만5천4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708명의 3.6배에 달하고 올 연말까지는 11만~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가구 중 소득 하위 30%의 올해 3·4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51.9%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7%보다 1.2%포인트나 늘었다.

서민경제가 파산 직전으로 내몰린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소득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0월까지 늘어난 일자리는 월평균 29만8천 개로 정부가 하향 조정된 목표치 35만 개에도 5만 개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경제적 보호막이 취약한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실업과 개인파산의 증가로 서민경제는 이미 파탄국면이 진입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많다.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서민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무너지고 있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기업투자 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 노동계 모두 합심해야 할 때다.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 언제까지...

광주·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올해도 여전히 밑바닥 수준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9.9%에서 20.2%로 조금 올랐으나 전국 최하위에 그쳤고 광주시도 지난해 60.6%에서 57.5%로 떨어졌다.

기초단체는 보다 심각하다. 광양시가 전남에서 가장 높았지만 48.7%에 그쳤고 함평, 곡성, 고흥, 장흥, 강진, 신안 등은 10%를 밑돌았다.

재정의 자립 없는 건전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에 의존해선 중앙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치단체가 만성적 재정적자를 끌어안고 정부만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민선 단체장 이후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각종 축제와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등은 지방의 재정난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없애고 기업유치를 통한 세원 확보 및 세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세의 지방재 전환과 기업의 지방이전 등 기존의 요구를 넘어 보다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無 等 鼓

테오 반 고흐는 비운의 화가 빈센트 이슬람 여성의 베일(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다.

반 고흐 감독은 이슬람 사회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해온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살해되기 전 이슬람의 여성 차별에 대한 TV 영화 '굴종'을 제작, 이슬람 과격세력의 살해 표적이 됐다.

지난 3월 얼굴과 손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인 질바를 학교에서 금지한 조치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유럽 국가의 이런 조치는 이슬람 문명의 상징을 야만으로 치부해 버리는 데 있다. 코시안(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간의 자녀)이 급증함에 따라 인종과 문명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요구 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反 이슬람



유럽 국가의 이런 조치는 이슬람 문명의 상징을 야만으로 치부해 버리는 데 있다. 코시안(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간의 자녀)이 급증함에 따라 인종과 문명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요구 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광배한 반 이슬람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법조 칼럼

김 승 휘



삼권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있고, 재판이란 사법권의 행사이므로 재판을 하는 내가 권력자임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하다.

재판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내가 텔레비전을 통해 본 판사가 멋져 보여 판사가 되기를 꿈꾸었으니 판사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이나 자유 때로는 생명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판사가 두렵고 또 멋져 보일 것이다.

그런데 막상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는 나로서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여간 سنگ인 게 아니고, 때론 부담스러울 경우도 있다.

때로는 환자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의사는 장래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이 없거나 다른 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는 통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계량화가 불가능하여 통증의 존부(存否)는 환자의 주관에 따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나는 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다른 어떤 분쟁해결절차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임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

생명과 장애에 대한 값 매김법

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다.

내 전임 판사님께서서는 언젠가 공석에서 "가끔은 당사자를 볼듯이 같이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을 잃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에게 억만금의 손해배상이 주어진다 그 것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일까? 사고로 장애가 남은 사람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신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그 슬픔에 공감을 표시해 주는 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들에게 '당신 자식의 몸값이 이만큼이었소, 당신의 장애의 값은 이만큼이오.'라고 선언하는 내가 병혈한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재판이 신의 영역에서도 공평하고 적절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인가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사람의 목숨과 장애를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지금의 내 업무는 적절한 분쟁의 해결보다는 조속한 분쟁의 종결만을 의도한 기술들의 모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마저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어쩌랴. 신의 영역에 이르지 못한 우리에게 현재로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가장 공평타당한 복수와 장애의 값 매김법일 수밖에 없는 것일... 나는 오늘도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공평타당한 생명과 장애에 대한 값 매김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철학 같은 어둠에 쌓인 지하주차장을 향해 판사실 문을 나선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담배연기에 화투판... 장례식장 문화 이젠 바뀌어야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가에 가서 음식 나르는 일과 치우는 일을 맡았는데 일부 문상객들이 담배를 피우며 그 풍조를 민병에 넣고 있었다.

제철이 옆에 있는데도 굳이 빈 병을 재떨이로 사용하고 있었다.

옆 자리에서는 큰 소리로 화투를 치고 있었고 한 쪽에서는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다.

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더 들지 않겠는가.

서울 한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술이나 음식을 일체 제공하지 않고 밤 11시가 넘으면 빈소의 전등마저 전부 끈다.

담배를 피워서도 안된다. 상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장례 문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남영·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 고

김 광 현



2007년도 노사관계는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비판적인 경기전망 등으로 노사관계가 부정적인 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조가 산업별로 통합되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새 제도가 정착되면 노사분규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지역도 뒤흔어지고 있는 노사분

출함으로서 노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여천NCC를 비롯하여 여천농협 등 노사가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여수산단은 물론 우리지역이 파업없는 무분규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였다.

이는 결국 3여통합을 실현한 30만 시민들의 상숙된 시민의식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창출한 결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

기업하기 좋은 여수, 상생의 노사문화 만드자

규모 인해 많은 인·물적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다행히 올해는 노사간 양보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내년의 노사문화가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가 크게 사실이다.

일례로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은 전국민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장기간 계속된 포항건설노조의 시위로 인하여 포항지역 경제가 침몰한다며 기업인과 상인들이 절망하고 나섰다.

포항지역 시민과 128개 기관·단체 25,000명은 '불법시위 규탄 및 포항경제 살리기 범시민결기대회'를 갖는 등 포항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경우, 건설노조와 여수산단 플랜트건설협의회·계전철의회는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

게된 의미있는 한해가 됐다.

또 여수상업에서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를 비롯한 30여개 경제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수기업사랑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시민 기업사랑운동 및 기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이 여수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30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기업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여수가 상생의 노사문화가 꽃피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업사랑운동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특하면 약속위반 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편리하고 좋았다. 하지만 물건을 사는 곳과 파는 곳이 다르고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그림만 보고 골라야 하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데 얼마 전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자인관련 외국 전문서적을 1권 구입했다. 주문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입금하고 책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는데, 1주일이나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고 책도 도착하지 않았다.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니 내가 주문한 책이 품절돼 10일 후에

나 재입고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학과 다른 친구는 내가 주문한 다음날 주문하고 3일 뒤에 받았다고 했다.

그 친구는 다른 학우들과 함께 통째로 11권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1권 주문은 나중에 배송해주고 나중에 주문한 것이라도 주문 물량이 많은 것은 즉시 배송해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게 책이 오지 않은 이유를 알고 나니 너무 화가 났다.

먼저 주문한 소비자를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박진민·광주시 동구 운림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